

##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전투

金 洋 植\*

1. 머 리 말
2.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3. 정부군의 출병과 세성산전투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은 500년 동안 유지되던 조선왕조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주의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역사적 대격변으로서, 한반도에서 전개된 내전과 국제전쟁의 결과였다.

내전은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輔國安民'·'除暴救民'을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놀란 정부는 청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한반도는 청·일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일본은 조선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 목적으로 1894년 6월 21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뒤 민씨정권을 축출하고 대원군정권을 수립하여 소위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은 6월 23일 청국에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청·일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일본이 조선정부의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과 청국의 전쟁터로 돌변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무장을 강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충청도에서는 이미 1894년 7월부터 동학농민군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으며, 동학교단 역시 9월 18일 대일본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전라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있는 전봉준 역시 대일본전쟁을 위해 9월 10일경 전주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서울로의 진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친일정부는 9월 14일 정부군을 동원하여 동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9월 18일 일본정부에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일본군 출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출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무력전투가 목천 세성산전투였다.

그 때문에 1894년 10월 21일(양력 11월 18일)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개된 세성산전투는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이 起兵한 주요 지역으로 목천 세성산을 지목하였다.<sup>1)</sup> 최현식도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로 세성산전투를 거론하였으며,<sup>2)</sup> 신용하는 1894년 10월 이후 동

1) 吳知詠, 『東學史』, 1940.

2)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郷土文化社, 1980, 175-177쪽.

\*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학농민군 주력부대의 복상과 주요 전투지로 세성산전투를 다루었다.<sup>3)</sup> 특히 향토사학자인 고 이원표와 장성균은 목천지역 유적지와 관련 인물을 찾아서 살살이 마을을 누비면서 조사·채록하고 발로 쓴 글을 발표하여 세성산전투의 실상에 상당히 접근하였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성산전투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학술연구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고 이원표와 장성균에 의해 현장조사는 상당히 이루어진 반면, 오히려 1차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했고,<sup>5)</sup> 그 결과 갑오년 당시에 쓰여진 문헌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오류가 오류를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향토사학자들이 발로 쓰고 정리한 것을 기초로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성산전투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정부군의 동향에 주목할 것이며, 기존에 알려진 일본군의 세성산전투 참여<sup>6)</sup>가 사실인지 여부를 해명하고자 한다. 또한 세성산전투가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성산전투가 동학농민전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3) 慎鋪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일조각, 1993), 329-330쪽.

4) 『天安市誌』, 1997, 267-285쪽. 이원표·장성균, 『동학혁명의 발자취-세성산에서 우금치까지-』(아우내문화원, 1997); 최인섭, 『천안지역 동학농민전쟁 연구』, 1997,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균,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천안』(아우내문화원, 2007).

5) 지금까지 세성산전투 연구는 주로 『兩湖右先鋒日記』, 『巡撫先鋒陣營錄』, 『東學亂記錄』 상, 281-304, 413-414, 424-429, 436-439쪽;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 152-156, 167-168쪽에 근거를 두었는데, 이들 사료에 나오는 개별 기록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아 오류를 낳았다. 그 이유는 세성산전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군 참여부분은 이들 기록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정부군의 움직임을 이들 기록에 기초하여 날짜별로 정리하지 않아 세성산전투과정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6) 일본군이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 글은 신용하, 위 책, 329-330쪽;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역사비평사, 1995), 239쪽; 이원표·장성균, 위 책, 104쪽 등이 있다.

## 2.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 (1) 목천지역 동학 전파

19세기 후반 조선의 전역으로 확산된 동학은 1860년에 창도된 뒤 1864년에 교조 최제우가 교수형이 처해지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이를 피해 제2세 교주 최시형은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 산간지방으로 숨어 다니며 포교 활동을 하였으나, 1880년대에 들어와 동학의 교세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동학의 물결은 충청도 목천지역에도 닿았다. 목천은 동으로 진천, 남으로 청주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특히 목천지역은 금북정맥을 지붕으로 삼고 있으면서 수계가 미호천과 연결되어 있어 청주지역과 같은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다. 이 때문에 1880년대 초반 청주지역으로 전파된 동학의 물결이 목천지역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목천지역에 동학을 전파한 주역은 목천 區內里에 사는 金殷卿이었다. 그는 1881년 8월에 이미 충북 단양에 있는 최시형을 찾아가 修道하는 절차를 물었을 뿐 아니라, 1883년 2월에는 그의 집에 『동경대전』 간행소를 설치하고, 경전 1천여 부를 간행하여 각 匱에 나누어 주었다. 이 책은 癸未年(1883년) 仲春에 北接(최시형)에서 중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목천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주도한 김은경은 1883년 3월에도 최시형을 배알한 일이 있었다.<sup>7)</sup> 그는 상당한 식견과 재력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살던 구내리는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면실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7) 『天道教書』, 布德22-24年條.

이와 같이 병천에 살던 김은경을 중심으로 목천지역에 동학이 일찍 전파되었는데, 특히 『동경대전』이 간행·배포된 것을 계기로 충청도 내륙지방으로 동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손병희·서장옥을 비롯해 뒷날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충청도 지도자들은 대부분 1883년 전후에 동학에 들어온 인물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1883년 병천에서의 경전 간행은 인접한 충청도지역뿐 아니라,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그에 따라 목천지역 역시 병천에서 흘러나온 동학의 물결이 퍼지면서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대되었다. 특히 천안 남면 竹巨里에 사는 金化成, 목천 伏龜亭의 대접주 金鏞熙, 金成之 세 사람은 소위 목천의 ‘東學三老’로서, 충북 보은에 있던 최시형으로부터 직접 동학에 가입한 뒤 각기 東包와 西包를 설치하고 조직 확대를 꾀하였다. 이들은 우선 6천 냥에 이르는 거금을 모아 『동경대전』 1백 권을 간행하여, 그 중 30권은 최시형에게 보내고 나머지 70권은 김화성과 김용희가 반반씩 나누어 가졌을 정도로 동학에 열심이었다.<sup>9)</sup>

그런데 ‘동학3로’가 『동경대전』을 간행한 것과 김은경 집에서 간행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sup>10)</sup> 들은 시차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는 ‘동학3로’가 동학에 가입한 해가 계미년에 보은 최시형에게서 동학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은경 집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해가 1883년이고 최시형이 보은에 머물기 시작한 해가 1885년 이후이므로, ‘동학3로’가 동학에 가입한 것은 1885년 이후이다. 따라서 ‘동학3로’가 간행한 『동경대전』은 1885년 이후로 보아야 하며, 혹 1883년에 김은경이 찍은 판

8) 김은경이 살던 ‘구내리’를 동면 죽계리 구계로 보기도 하나(이원표·장성균, 앞 책, 151-156쪽),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병천 면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표영삼 증언). 병천의 옛 이름의 하나는 ‘구계(九溪)’ 또는 ‘아내’였는데, 기록에 보이는 ‘구내’는 ‘구계’나 ‘아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면실은 강릉김씨 세거지로서 동학농민혁명 때 마을이 모두 불탔고 접주 김교양이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아우내문화원, 『東天安 文化-지명의 유래와 전설-』, 2005, 9쪽).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9)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 167-168쪽.

10) 이원표·장성균, 앞 책, 156쪽.

목으로 다시 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이 1883년 이후 목천지역은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대되고 조직화되어가는 추세였다. 그래서 목천 동학도들은 1892~1893년에 걸친 동학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892년 7월부터 시작된 동학 교주신원운동은 12월부터 동학교단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1893년 2월부터는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에 엮드려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광화문 복합상소’가 전개되었다. 더욱이 동학의 교주신원운동은 전국 곳곳에 외세를 물리치자는 방문이 나붙는 등 ‘斥倭洋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척왜양을 부르짖는 일부 방문에는 천안·청주에 모여 곧장 서울로 쳐들어가지고까지 하였다. 실제로 목천·보은·영동 등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93년 3월 11일 보은집회가 열렸다. 4월 2일까지 최소 2만 명 이상의 동학도들이 참가한 보은집회는 반봉건·반외세를 목표로 한 최초의 근대 민중집회였다. 목천 동학도들 역시 보은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보은집회에 참여한 지역은 <표 1>과 같았다.

<표 1> 보은집회 참가 군현

도	참가군현	계
강원도	원주	1
경기도	광주·송파·수원·안산·안성·양주·여주·용인·이천·죽산	10
경상도	금산·상주(공성)·선산·성주·안동·인동·지례·진주·하동	9
전라도	나주·남원·무산·무안·순창·순천·영광·영암·장수·진주·태인·함평·장흥·익산·여산·진도·임실·부안·고흥·강진·광양	21
충청도	공주·덕산·목천·비인·연산·직산·진잠·천안·직산·청산·청안·청주·진천·충주·태안·영동·옥천	17
계		58

자료 : 吳知泳, 『東學史』, 1940.

〈표 1〉과 같이 보은집회에는 전국의 58개 군현에서 동학도들이 참여하였는데, 충청도는 17개 군현에 이른다. 특히 목천과 인접해 있던 충청도 천안, 직산, 공주, 청주, 진천과 경기도 안성 등지의 동학도 참여가 두드러진 양상이다. 이는 그만큼 목천과 그 주변 지역에 동학교세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동학농민전쟁 발발과 목천지역 동정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의 주도로 발발하였다. 동학농민군은 3월 23일 전라도 고부, 4월 7일 정읍, 8일 고창, 9일 무장, 12일 영광, 16일 함평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그동안 낡고 썩은 폐정을 개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권력을 독점하고 농민들을 수탈한 민씨척족세력을 축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외에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도 동학도들이 봉기하였다. 4월 19일 동학농민군이 점거하였거나 횡행한 지역은 전라도가 고부·태인·부안·금구·고창·무장·나주·함평·무안·영광, 충청도가 목천을 비롯해 회덕·진잠·청산·보은·옥천·문의 등 전지역의 1/3에 이르렀다. 또한 4월 28일자(양력 6월 1일) 「万朝報」에는 4월 13일 충청감사가 보낸 전보를 인용하여, “옥천, 회덕, 진잠, 문의, 청산, 보은, 목천 등지에 농민군 3천여 명이 모여 있으며, 탐문 결과 이들은 首魁가 오는 것을 기다려 운동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동학농민전쟁은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목천을 비롯한 충청도 지역에서도 일어나 서로 호응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호남지방으로 내려가 합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같은 충청도지역의 봉기는 일단 정부의 탄압과 전라도에서의 집강소 설치로 진정되는 국면이었으나, 6월 21일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청일전쟁 발발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기 시작하였다. 7월에 들어와 충청도

전역은 사실상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7월 9일 임명된 호서선무사 정경원과 충청감사 이현영은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선무책을 따라 충청도에도 집강을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최시형에게 동학 대접주 중에서 집강을 임명하고 그에게 동학농민군을 통제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동학교단은 충청도 각지에 집강을 임명하였다. 이때가 7월 15일경으로, 당시 충청도 집강은 〈표 2〉와 같았다.

〈표 2〉와 같은 충청도 집강들은 모두 그 지역 동학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다. 목천 집강 김형식에 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충청도 각 군현에 체계적으로 집강이 임명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충청도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집강을 통해 동학농민군을 해산하려던 정부쪽의 의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므로 시국을 관망하라는 동학교단 최시형의 通諭文과 啓飭文도 소용이 없었다.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날로 확대되었다. 7, 8월 충청·전라·경상도 지역은 동학의 열기로 가득 찼으며, 집강으로 임명된 상당수의 접주들도 정부와 동학교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7, 8월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고 새로 동학에 가입하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동학농민군의 열기는 7월의 불멸더위만큼이나 달아오르고 있었다.

더욱이 천안지역은 7월 29일 일본군과 청국군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의 성환전투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인 6명이 주민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894년 8월 12일(양력 9월 11일) 천안 남산 밑에서 주민들이 도로와 교량을 수축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내려오던 일본인 6명과 주민들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金敬先·趙明云의 등을 칼로 찔러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두 사람과

<표 2> 집강망과 각 지역 동학지도자 명단

군현(郡縣)	집강 이름	군현(郡縣)	집강 이름
공주	장준환(張俊煥)	노성	
연기	최명기(崔鳴基)	연산	박영채(朴泳采)
전의	임형준(任瑩俊)	당진	
은진	염상원(廉相元)	면천	이회삼(李花三)
진잠	송석종(宋錫宗)	태안	
서산	이창구(李昌九)	한산	김충선(金忠善)
해미		임천	
홍주	김영필(金永弼)	아산	안교선(安敎善)
결성	천대철(千大哲)	온양	방화용(方化鏞)
서천	임용성(林鏞聲)	예산	박덕칠(朴德七)
비인		덕산	박용서(朴龍緒)
남포	김우경(金禹卿)	신창	
보령		청양	유진우(兪鎭憂)
대흥		직산	
정산		단양	성두한(成斗漢)
부여	이중필(李鍾弼)	영춘	김선달(金善達)
석성		청풍	
홍산	김태운(金泰運)	제천	
목천	김형식(金滢植)	충주	신재련(辛在蓮)
천안		진천	
평택	김수길(金鏞吉)	괴산	홍재길(洪在吉)
연풍		음성	
문의	오일상(吳一相) 박상기(朴相基)	청산	박태현(朴泰玄) 김익균(金翼均)
회덕	김복천(金福天) 강건회(姜建會)	옥천	박석구(朴錫球) 이용용(李龍容)
회인	강영석(姜永奭) 박성환(朴聖煥)	영동	손인택(孫仁澤) 최천식(崔天植)
보은	황하일(黃河一) 임국호(任局鎬)	황간	조재벽(趙在壁)

계 : 41명

자료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여 서울쪽으로 달아나던 일본인들을 뒤쫓아 가 돌팔매질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11)</sup>

이를 계기로 목천을 포함한 천안지역의 민심은 더욱 동요하여 사실상 행정이 마비되고 동학도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시도하는 등 더 한층 봉기하는 양상이었다. 당시 천안지역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동학당이 다시 발동하여 극심하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학도 중 두령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金滢植·金鏞喜 두 사람은 직산·평택·목천·천안 등 여러 곳을 활거하고 있습니다. 김용희·金九燮은 현재 목천에 살고, 安敎西는 온양이라는 곳에 살고, 洪承業은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천안 군민 중 10中 8, 9명은 동학당에 가맹하고 있고 더욱 더 성대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sup>12)</sup>

이와 같이 1894년 8월 목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동학농민군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10명 중 8, 9명이나 동학당에 들어가 있었으며 일본과 개화파정부에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이들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는 목천 집강 김형식으로, 그의 활동영역은 목천 외에 천안·직산·평택 등에 걸쳐 있었다. 그밖에 목천의 김용희와<sup>14)</sup> 김구성, 온양의 안교서, 천안의 홍승업 등이 해당 지역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11) 천안에서의 일본인 살해사건은 최인섭, 앞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음(30-31쪽). 그 뒤 주동자 두 사람은 체포되어 1895년 3월에 재판, 곤장 1백 대를 맞고 3천 리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東學 關聯 判決文集』, 77쪽).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22쪽.

13) 위와 같음.

14) 김용희는 경기도 진위까지 동학을 포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표영삼 증언).

### 3. 정부군의 출병과 세성산전투

#### (1) 동학농민군의 세성산 주둔

7, 8월에 사실상 봉기한 목천지역 동학농민군은 9월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나섰다. 특히 8월 25일 김개남의 전라도 남원에서 재봉기, 9월 10일 전봉준의 전주 삼례에서의 재봉기, 9월 18일 남북접 연합과 동학교단의 對日抗戰 참여로 이어지면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과 개화과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재기병을 단행하였다.<sup>15)</sup>

9월 30일을 전후로 전국의 동학 포접조직은 재기포하고 무기를 탈취해 무장하였다. 목천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목천지역 동학도들은 각 포접조직을 확대 정비하였다. 드디어 9월 30일경 金福用과 李熙人을 중심으로 무장봉기한 뒤,<sup>16)</sup> 천안·목천·전의 3읍의 관아에 보관 중이던 무기를 탈취한 다음 세성산으로 들어가 거점을 확보하였다.

세성산은 현재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성남면 사이에 위치한 해발 180m의 야산이다. 이 산은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로 옆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북쪽은 절벽을 이루고 남쪽은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 산 정상에는 길이 144m, 높이 3m의 내성과 길이 350m, 높이 3m 외성, 그리고 길이 412m, 폭 5m의 보루가 있어 군사적 요충지였다.<sup>17)</sup>

이와 같은 세성산에 목천과 주변지역 동학도들이 무장하고 모여든 것은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

15)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8, 330-336쪽 참조.  
 16) 吳知詒, 『東學史』, 1940.  
 17) 『天安市誌』 하, 1740-1741쪽.

단, 즉 北接은 9월 초순까지도 소위 남접이 주도하는 농민전쟁을 적극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쪽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다.<sup>18)</sup> 이 같은 동학교단의 입장이 바뀌는 주요한 시점은 9월 18일 各包 대접주들을 소집해 열린 靑山 회의였다. 여기서 최시형은 孫秉熙·孫天民·黃河一 등의 擧義 주장을 받아들여 “道衆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고 師冤을 伸하며 吾道의 大願을 실현하라”는 명을 내렸다.<sup>19)</sup>

이에 따라 보은 동학교단은 동학본부 역할을 하던 法所와 道(都)所를 倡義所로 바꾸고 모든 軍號에 義字를 사용하였다.<sup>20)</sup> 또한 최시형은 9월 25일 이후 자신 명의로 된 통문을 보내 起包를 명하였다. 이에 북접 소속 각 포접은 개별적으로 기병하였는데, 경상도 김천은 9월 25일 통문을 받고 기병하였고,<sup>21)</sup> 충청도 서산일대는 9월 28일경 통문을 받아 10월 1일 봉기하였다.<sup>22)</sup> 이것으로 보아 동학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실제 각 포접이 9월 말에 起兵하였는데, 목천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목천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기병 상황은 다음과 같다.<sup>23)</sup>

손천민·이용구는 청주에서 기병하고, 김연국·황하일·권병덕은 보은에서 기병하고, 김복용·이희인은 목천에서 기병하고, 정원준·강채서는 옥천에서 기병하고, 박인호는 서산에서 기병하고, 김정삼은 신창에서 기병하고, 김○배는 덕산에서 기병하고, 박용태·김현구는 당진에서 기병하고, 김동두

18) 김양식, 『1894년 농민군 都所의 설치와 그 이념』, 『한국근현대사연구』 2, 1995, 30쪽; 서영희, 『1894년 농민전쟁의 2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역사비평사, 1996), 152쪽.  
 19)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65쪽. 이 자료에는 청산에 모인 자가 수만 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이때 이미 교단쪽의 起包수가 내려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천도교쪽 자료 외에 어디서도 9월 18일에 동원령이 내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9월 18일 청산 모임은 동학교단 소속의 지도자급 접주들만 참석한 것 같으며, 일반 동학도에 대한 기포령은 그 이후 9월 말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21) 崔鳳吉, 『歲藏年錄』,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2, 259쪽.  
 22) 洪鍾植, 『동학란 실화』, 『新人間』 34, 1929; 洪權, 『洪陽紀事』, 10월 3일조.  
 23) 吳知詒, 『東學史』, 1940.

는 태안에서 기병하고, 김두열·한규하는 홍주에서 기병하고, 박희인은 먼 천에서 기병하고, 주병도는 안면도에서 기병하고, 추용성은 남포에서 기병하고, 김지택·배성천은 공주에서 기병하고…….

이와 같이 1894년 9월 말 충청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기병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목천지역 동학농민군도 김복용과 이희인을 중심으로 기병하여 세성산으로 집결한 것이다.

세성산을 근거로 모여든 목천지역 동학농민군은 앞으로의 전투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무장을 강화하였다. 군량미도 확보해 세성산 정상에 비축하였다. <표 4>에서 정부군이 세성산전투에서 노획한 무기와 곡물류가 증명하듯이, 세성산에 비축한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군량미 등은 매우 많은 양이었다. 이들 무기와 식량은 주로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탈취한 것으로, 천안군 관아에 있던 무기는 읍내에 살던 林萬鎭이 세성산으로 옮겼다.<sup>24)</sup>

세성산으로 모여든 동학농민군 숫자도 대단한 인원이었다. 현재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5)</sup> 더욱이 세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목천지역 외에 인근지역(천안·직산·평택·전의)을 비롯해 멀리 충북 진천과 음성 무극 출신도 있었다. 이들은 세성산 정상에 성을 쌓고 깃발을 꽂아 놓고 기세를 올리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이들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는 金福用, 元全玉, 金永祐, 李熙人, 金化成 등이었다. 김복용은 북접 소속 대접주로서 세성산 동학농민군을 총지휘한 대장이었는데, 세성산전투 이전에 목천지역에서 활동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원전옥과 김영우 역시 각각 火砲大將과 中軍을 맡았는데, 이들 역시 김복용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온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다.

24)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상, 438쪽.

25) 吳知詒, 『東學史』, 1940.

반면에 김화성과 이희인은 목천지역에 기반을 둔 동학 지도자들이었다. 천안 남면에 거주하던 김화성은 1885년 이후 목천지역 동학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을 八道都大正, 사위를 教長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대장장이 등을 불러 모아 긴 창과 火砲를 제조하였다.<sup>26)</sup> 또한 세성산전투 당시에는 그의 包 간부로 활동하던 李善一과 羅采益, 그의 아들 金仲七 3형제도 적극 참여하였다.<sup>27)</sup>

이희인(1846~1894)은 목천현 병천면 병천리 개목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본관은 전주이며 세종대왕의 후손으로 할아버지 수익은 서산 군수, 백부 학래는 부사를 지냈고 백형 회민은 참봉 직함을 받았다. 그는 상당히 부자였으며 글 잘하는 선비로 통했다고 한다. 1893년 동학도 상소문을 올릴 때에 허연, 서병학 등과 연명하였을 정도로 동학의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sup>28)</sup> 세성산전투 당시 左右道 都禁察이라는 직책을 맡았다.<sup>29)</sup>

이와 같이 세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김복용을 중심으로 한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희인·김화성 등과 같은 재지세력이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세성산에 진을 친 것은 장차 서울로의 진격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컸다. 특히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북상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 소속 동학농민군 역시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동학농민군의 세성산 점거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학농민군 진영의 최북단에 있고 서울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세력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26)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상, 437쪽.

27) 위와 같음.

28) 이이화 외,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349-359쪽.

29)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10월 22일조.

## (2) 정부군의 구성과 출병

동학농민군이 전국적으로 재기병하고 무장을 강화하자, 정부는 9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력진압에 나섰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동원된 정부군은 친군경리청병 703명, 친군장위영군 850명, 친군통위영군 401명, 교도대 328명 등 총 2,414명이었다.<sup>30)</sup> 이들 군대는 李斗璜과 李圭泰가 인솔하였는데, 이두황이 이끄는 右先鋒陣(친군장위영군)은 9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죽산→청주 방면으로 진군하였고, 이규태가 이끄는 巡撫先鋒陣(교도대·통위영군)은 10월 10일 서울을 출발하여 수원→천안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그와 동시에 친일정부는 9월 18일 일본 군대를 파병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하였다. 동학농민군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은 농민군 진압을 위해 특별히 파견된 후비보병독립 제19대대 외에, 병참부에 소속된 수비병(이상 약 5,800명), 해군 군함 築波·操江號 2척과 해병대 2개 중대였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지휘 통제권은 전적으로 일본군이 행사하고 있었다. 일본군 당국은 농민군 토벌만을 위해 특별히 파견된 후비보병 제19대대가 충청·전라·경상도 농민군을 괴멸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일본군 병참부 수비병이 섬멸시키는 전략을 짰다. 구체적인 후비보병의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sup>31)</sup>

1. …… (동학당의) 근거지를 찾아내어 이를 剿節하라.
2.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 항에서 지적하는 세 개의 길로 分進하여 조선군과 협력, 연도에 있는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剿滅함으로써 동학당이 다시 흥기하는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 단, 이번 동학당을 진압하기 위해 전후로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조달은 모두 일본군 사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며 일본군법을 지키게 하라 …….

3. 보병 1개 중대는 西路, 즉 수원·천안 및 공주를 경유 …… 보병 1개 중대는 中路, 즉 용인·죽산 및 청주를 경유 …… 보병 1개 중대는 東路(일본 병참로선), 즉 가흥·충주·문경 및 낙동을 경유 …… 각 중대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기맥을 통하고 가능한 한 합동하여 포위 초멸하는 방략을 취해 다 같이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해야 한다. 각 중대는 적의 무리를 소탕하여 그 패잔병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경상도 낙동에 집합, 다음 명령을 기다릴 것. 본대본부는 중로 분진대와 함께 행진하라.
4. …… 동로 분진중대를 조금 먼저 가게 해서 비도를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전라도방면으로 내몰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비도들을 강원도와 함경도쪽, 즉 러시아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도피케 하면 적지 않게 후환이 남을 것인즉 엄밀히 이를 예방해야 한다.
5. 각 분진중대에는 조선조정으로부터 진무사 및 내무관리 등을 따르게 할 것이다.

즉, 일본군 후비보병을 서·중·동로 3개 分進隊로 나누어 남진시키되 동로 분진대를 앞서가게 하여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방면으로 포위공격해 그 근거지를 일망타진한 뒤 낙동에 집결하는 전략이었다. 작전기간은 29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후비보병은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 용산을 출발해 계획대로 작전에 들어갔다.<sup>32)</sup>

이들 군대 중에서 목천 세성산으로 향한 토벌군은 竹山府使 李斗璜이 이끄는 친군장위영군이었다. 친군장위영은 1888년에 친군영의 前營과 左營을 합하여 설치한 군영으로 국왕의 친위부대였다. 그 때문에 정부는 1894년 3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兩湖招討使 洪啓薰(?~1895)으로 하여금 장위

30) 慎鍾廈, 『甲午農民戰爭의 第2次 農民戰爭』,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일조각, 1993), 322-327쪽; 具良根, 『농민전쟁과 일본군의 부서』, 『甲午農民戰爭原因論』(아세아문화사, 1993), 414-428쪽 참조.

31) 『駐韓日本公使館紀錄』 1, 153-156쪽.

32) 위의 책, 159쪽.

영 소속 정부군을 인솔하여 전라도로 내려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와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이번에도 장 위영군을 동원하여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선 것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친군장위영군은 <표 3>과 같이 1개 중대 병력으로, 12개 소대와 화력부대인 포대, 나팔을 부는 병정으로 편성된 곡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인원은 이두황을 비롯한 본대가 14명, 소대가 688명, 총 702명이었다. 소대 편제는 좌-중-우 각 4개 소대씩 구성하였다. 소대 인원은 최소 31명에서 최대 68명씩 배치하였는데, 가운데 소대는 인원이 적고 오른쪽 소대는 많게 편성하였다.

<표 3> 정부군(친군장위영군) 구성

본 대	副領官 李斗璜														
	參 領 元世祿														
	隊 官 4명														
	別軍官 4명														
	書 記 4명														
소 대	左一 小隊	左二 小隊	左三 小隊	左四 小隊	中一 小隊	中二 小隊	中三 小隊	中四 小隊	右一 小隊	右二 小隊	右三 小隊	右四 小隊	砲 隊	曲 號 隊	계
교장(敎長)	2	3	1				1	1			1	1	2		12
규칙(糾飭)	3	2	2	1	2	1	1	2	1	1			1		17
십장(什長)	3	2	9	3	1	3	3	4	3	4	6	3	2	2	48
병정(兵丁)	52	42	49	47	26	35	38	52	54	50	57	38	12	14	566
화병(火兵)	3	2	2	2	2	4	2	4	4		4	2	2	2	35
후병(候兵)		2	2			1	1	1				1	2		10
계	63	53	65	53	31	44	46	64	62	55	68	45	21	18	688

자료 : 『양호우선봉일기』, 『東學亂記錄』 상, 328-334쪽.

각 소대는 소대장인 교장, 부대의 규율과 질서를 잡는 규칙, 분대장인 십장, 병정, 화병, 척후병 등으로 편제하였다. 교장은 모든 소대에 두지 않았으며 척후병 역시 4개 소대 중 6개 소대만 1~2명씩 배치하였다.<sup>33)</sup> 그밖에 친군장위영군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通引, 적의 동정을 살피는 讖校, 官奴, 군대 물품을 조달하는 보부상, 마부 등도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수품 운반은 60여 필에 이르는 소나 말을 사용하였다.<sup>34)</sup>

이렇게 구성된 친군장위영 소속 정부군은 9월 20일 서울을 출발해 경기도 죽산에 머물면서 인근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였다. 이두황은 10월 1일 兩湖巡撫營으로부터 청주성이 위험하니 화급히 달려가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35)</sup> 실제 서장옥·손천민이 이끄는 청주지역 동학농민군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청주성을 사이에 놓고 진남영군과 공방전을 벌이다 패한 뒤 다시 재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sup>36)</sup> 또한 9월 29일에는 경기도 안성·이천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진천 관아를 습격하였고<sup>37)</sup> 10월 초에는 충북 진천 구만리장터와 음성 무극장터에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들은 10월 6일 무극장터로 총집결한 뒤 괴산으로 향하였다.<sup>38)</sup> 이와 같이 10월 초순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의 앞에는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주둔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황부대는 청주성을 방어하라는 명을 곧바로 따르지 않고 죽산에 머물면서 동학농민군의 동정만을 엿보고 있었다. 이두황은

33)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328-334쪽.

34) 친군장위영군의 편제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0월 말 친군장위영군의 편제는 모두 4개의 소대와 곡호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원은 692명이었다. 그밖에 서기 5명, 통인 2명, 讖校 22명,卒 30명, 官奴 3명, 보부상 45명, 마부 51명 등을 합하면, 친군장위영군의 총 인원은 850명이었고 우마는 96필이었다(『各陳將卒成冊』, 『東學亂記錄』 하, 633-638쪽).

35)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65쪽.

36) 김양식, 『새야새야과랑새야』(서해문집, 2005), 129-132쪽.

37)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64쪽.

38) 위의 책, 266-267쪽.

진천·음성·충주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괴산·보은 쪽으로 내려가 평정을 찾은 10월 9일에서야 음성→청안으로 행군하여, 10월 12일(양력 11월 9일) 괴산을 거쳐 청주에 도착하였다. 안성군수 成夏泳이 이끄는 경리청 소속 군대도 이미 청주에 도착해 있었다.<sup>39)</sup>

그리하여 청주 병영에는 장위영군, 경리청군, 진남영군(청주 병영군) 세 군대가 집결해 있었다. 10월 12일 저녁 청주 병영에서는 중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북접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보은 장내리를 조속히 초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다음날 아침 8시경 세 군대는 보은 장내리로 총출동하였다. 현지 사정에 밝은 진남영군은 앞에 서고 장위영군은 가운데 서고 경리청군은 뒤따랐다. 상당산성을 넘어 미원에 도착한 경리청군은 미원에 머무르면서 후방 지원을 하도록 한 뒤, 장위영군과 진남영군은 계속 행군하여 보은 중치에서 동학농민군 3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 군대는 보은 길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중치에서 잡은 동학농민군을 심문하여 접주와 동학문서를 소지한 12명의 목을 잘라 처형하고 또다시 大巖과 威林驛에서 동학도를 붙잡아 즉시 목을 잘랐다. 그런 다음 진남영군은 곧바로 보은 읍내로 들어가 주둔하였다.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장내리로 쳐들어갔으나,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 소속 동학농민군들은 10월 11일 이미 청산으로 옮겨 간 뒤였다. 그래서 장위영군은 장내리 마을을 샅샅이 수색하여 2명을 붙잡아 즉시 목을 베고 압수한 물품과 초막 40여 채, 민가 수백여 호를 모두 불태웠다.<sup>40)</sup>

보은 장내리를 초토화한 장위영군은 보은 읍내로 들어왔다. 후방을 방비하던 경리청군도 보은 읍내로 들어와 합류하였다. 이들 정부군은 옥천 청산과 영동에 집결해 있는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가기 위해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하여 회인에 도착하였다. 이때 공주 충청감영과 청주 병영으로부터

39) 위의 책, 269-271쪽.

40) 위의 책, 271-274쪽.

잇달아 급보가 당도하였는데,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주둔해 있으면서 감영을 위협하니 신속히 공주로 행군하여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sup>41)</sup>

실제 전봉준은 10월 11일 서울 공약을 위해 전주 삼례를 출발해 12일 논산에 도착해 있었다. 10월 11일 보은 장내리를 출발한 최시형 역시 동학교단 소속 동학농민군을 갑·을 두 부대로 나누어 전봉준부대와 연합해 공주를 공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손병희가 지휘하는 갑 부대는 옥천·영동을 거쳐 논산에 이르러 전봉준부대와 합류하였고, 을 부대는 회덕을 거쳐 공주 대교 쪽으로 진군하였다. 손병희부대와 전봉준부대가 공주 공격을 위해 합류한 시점은 10월 15일경이었다. 그에 따라 공주 충청감영이 점점 수만명의 동학농민군에 의해 포위되면서 위기에 빠지는 형국으로 급진전되고 있었다.<sup>42)</sup>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충청감사는 충청감영이 위급하므로 급히 달려와 지원하라고 이두황부대에게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두황부대는 방향을 바꾸어 공주로 가기 위해 회인→문의→부강을 거쳐 10월 18일 연기 봉암동에 주둔하였다. 이두황부대는 충청감영의 지시에 따라 청주병영군과 합세하여 유성에 모여 있는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계획이었다.<sup>43)</sup> 경리청군 역시 이미 공주를 향해 출발하여 10월 18일 毛老院에 주둔해 있었다.<sup>44)</sup>

### (3) 세성산전투와 그 결과

10월 20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공주 충청감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기 봉암동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날 새벽 청주병영에서 전령이 왔다. 목천 세성산에 모여 있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다음날 출정하여 목천

41) 위의 책, 277-279쪽.

42) 김양식, 『새야새야 파랑새야』, 앞 책, 148-149쪽 참조.

43)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80-282쪽.

44) 『先鋒陣日記』, 『東學亂記錄』 상, 224쪽.

북면 陽地里에 주둔할 것이니, 장위영군 역시 속히 양지리로 와서 합세하자고 하였다.<sup>45)</sup>

그에 따라 장위영군은 10월 20일 아침 8시경에 연기 봉암동을 출발해 목천 세성산으로 행군하였다. 이두황은 충청감사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청주 병영의 제안에 따라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청주 병영은 충청감사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세성산을 공격하도록 한 것일까? 전봉준과 최시형이 대일본전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출병시켜 공주 공격에 나선 10월 11일 이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총지휘본부인 양호순무영과 선봉진 및 충청감영의 기본적인 전략은 시시각각 위기가 가중되는 공주로 군사력을 집중시켜 방어하는 것이었다.<sup>4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병영은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이 공주로 가는 것을 막고 세성산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주 병영의 방어를 위해 주변에 있는 위협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9월 허순 동학농민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던 청주 병영은 10월 3일 순찰 중이던 73명의 소속 장졸들이 동학농민군의 습격을 받아 몰사하여 전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sup>47)</sup> 목천 세성산을 비롯한 청주 주변의 동학농민군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청주 병영은 목천 세성산을 먼저 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두황은 양호순무영과 충청감영의 사전 허락 없이 청주 병영의 지시에 따라 목천 세성산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그 이유는 목천 동학농민군이 공주와 청주 사이에 집결해 있어 큰 우려가 될 뿐 아니라, 서울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어 선봉진의 앞길에 장애가 되므로, 먼저 서울과 가까운 적을 격파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sup>48)</sup>

실제 10월 20일 무렵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중심으로 남쪽 논산에, 동쪽

45)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82쪽(10월 20일조).

46) 이와 같은 전략은 『兩湖右先鋒日記』, 『巡撫先鋒陣瞻錄』, 『東學亂記錄』 상: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등의 10월 11일부터 27일 사이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47) 『慕謀祀實記』 참조.

48) 위의 책, 283·287쪽.

유구에, 서쪽 홍주에, 북쪽 목천 세성산 등지에 대규모의 세력이 집결해 있었다. 오지영은 당시 상황에 대해, “최한규는 3천 군을 거느리고 공주 유구 방면을 지키었고 정원준은 5천 군을 거느리고 옥천, 영동, 황간 등의 방면을 지키었고, 김복용과 이희인 등은 4천 군을 거느리고 목천 세성산 방면을 지키었고, 박덕칠과 박인호는 7천 군을 거느리고 홍주, 예산 등의 방면을 지키어, 一邊은 충청 일대의 自境을 보호하며 一邊은 남군(전라도 동학농민군)의 북진을 接應코자 각기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이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은 각기 요충지에 집결해 있었으며 장차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학농민군과 접응하기 위한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을 이두황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두황은 서울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천 세성산을 먼저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감사는 이두황부대가 공주로 오지 않고 청주 병영의 지시에 따라 세성산으로 간 것을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청주 병사를 파직하도록 아뢰었다.<sup>50)</sup>

드디어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 1개 중대병력은 10월 20일 저녁 松亭里(현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에 도착하여 鄭志完 집에 머물러 잤다. 다음날 21일(양력 11월 18일) 아침 7시경 이두황부대는 長明洞(현 천안시 수신면) 洪嘉裕의 집에 도착해 동학농민군의 동태와 세성산 지형을 정탐하였다.

그 결과 세성산의 3면은 절벽이고 1면은 조금 평평한 상태였다. 둘레가 약 10리 정도 되는 세성산 정상부 토성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은 깃발을 숲처럼 꽂아놓고 성 주변에 둘러서서 총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던 청주병영군은 오지 않았다. 일본군 역시 세성산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래 일본군이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0월 15일 용산을 출발한 일본군 西路軍 일부는 10월 17일

49) 吳知詒, 『東學史』(대광문화사 복간본, 1984, 159쪽).

50)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87쪽.

천안을 거쳐 공주로 이동하였고 본대 역시 세성산전투 다음날인 10월 22일 천안을 거쳐 공주로 들어갔다.<sup>51)</sup>

10월 11일 서울을 출발한 선봉진부대 역시 성환을 거쳐 19일 천안에 도착해 23일까지 머물렀으나, 목천으로 이동하지 않았다.<sup>52)</sup> 실제 세성산전투에 참여한 군대는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뿐이었다.

드디어 이두황부대의 독자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두황부대는 먼저 동북쪽 土山 위에 주둔하고 휴식을 취한 뒤, 공격을 개시하였다. 1개 소대는 계속 토산 위에 주둔시키고, 1개 소대는 세성산 동남쪽 산기슭으로 총을 쏘면서 정상으로 공격하게 하고, 2개 소대는 세성산 북쪽 산기슭 밑에 매복시켜 놓았다.

드디어 동학농민군들이 성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후퇴했고, 동남쪽 산기슭으로 올라간 이두황부대가 성을 차지하였다. 그곳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버리고 간 깃발을 비롯해 총, 창, 징, 북, 나팔, 곤장, 전립, 바라, 칼, 가마솔, 세발, 쌀, 조, 땔나무 등을 거두어 모았는데, 쌓인 것이 산더미 같았다. 또 풀 움막 50군데가 있었다. 이렇게 세성산 정상을 차지하는 한편, 북쪽에 매복해 있던 이두황부대가 후퇴하는 동학군을 10리 정도 추격하면서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이때 사로잡은 동학농민군 중에서 李福吉 등 10명은 그 자리에서 처형하였고 동학농민군 대장 김복용은 생포하여 진영으로 압송하였다.<sup>53)</sup>

이 전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두황부대는 뒷수습을 위해 장명 홍가유 승지집에서 보낸 저녁을 먹고 세성산에서 밤을 보냈는데, 이날 올린 전과는 <표 4>와 같았다.<sup>54)</sup>

51)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과 日淸戰爭』, 일본 千葉 大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34-35쪽.  
 52) 『巡撫使呈報牒』, 『東學亂記錄』 하, 7-10쪽.  
 53) 이상과 같은 세성산전투과정은 「兩湖右先鋒日記」, 『巡撫先鋒陣營錄』, 『東學亂記錄』 상, 281-304, 413-414, 424-429, 436-439쪽.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 152-156, 167-168쪽에서 정리함.  
 54)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87-289쪽 참조.

<표 4> 정부군이 세성산전투에서 노획한 동학농민군 무기와 군량

무기류			
조총	140정	나팔	2개
창	288자루	긴화살(長箭)	3,300개
거마철(巨馬鐵)	32건(件)	아기살(片箭)	2,000개
징(鉦)	5좌(座)	청국단환 36개	(22,500개)
동로구(銅爐口)	3좌(座)	철환(鐵丸)	366,000
북(鼓)	3좌	작은삼	5자루
큰 삼	5자루	소철로(小鐵爐)	1좌
월도(月刀)	1좌	곡괭이	1자루
철촉룡(鐵燭籠)	2쌍	잡색대소기(雜色大召旗)	30면
철질러(鐵疾藜)	1,500개	화살촉	2,000개
곡물류			
백미	266섬	벼(正租)	367섬
콩	12섬	보리	8섬
소금	3섬		
살해한 동학농민군			
추격 살해	7명	체포 살해	10명

자료 : 최인섭, 「천안지역 동학농민전쟁 연구」, 1997,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쪽 참조.

<표 4>와 같이 이두황부대가 확보한 무기류는 엄청난 양이었을 뿐 아니라, 조총도 140정이나 되었다. 게다가 산 정상에 쌓아 놓은 군량미도 대단한 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은 이두황부대의 공격에 맞서 큰 저항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동학농민군의 속성상 오합지졸인 데다 정부군에 맞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기와 식량은 통위영군과 청주병영 등지로 보내져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용도로 재사용되었다.

이렇게 큰 전과를 올린 이두황부대는 세성산에 계속 머무르면서 뒷정리를 하는 한편 잔여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처형하였다. 그 외에 천안군과 민

보군도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이두황부대에 인계하였다.

특히 召募官 鄭基鳳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기봉은 경기도 안성의 前主事로서, 안성·죽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로 순무영에서 畿甸 召募官으로 임명된 민보군이다.<sup>55)</sup> 그는 세성산전투 다음날인 10월 22일 목천 東里로 행군하였다가 세성산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의 무리 李熙人, 韓喆永 등 60여 명을 포획하였다. 이희인은 左右道 都禁察이었고, 한철영 역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다. 그 외에 명색 있는 동학농민군 12명을 모두 총살하고, 나머지 50명은 귀화하기를 원하여 풀어주었다.<sup>56)</sup> 정기봉은 23일에도 張丕用·安千福을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보냈다. 24일에는 목천 갈전면에 이르러, 그곳에 모여 있던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해 총과 칼 100여 자루를 노획하였다.<sup>57)</sup> 그는 이 공로로 특별히 목천현감으로 임명되었고 湖西 召募官을 겸임하게 되었다.<sup>58)</sup>

천안 의병장 尹英烈도 세성산전투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는 데 가담하였다. 그는 천안에 사는 前監察로서 의병, 즉 동학농민군에 대한 민간 토벌대인 민보군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10월 24일 천안 남쪽 所巨里에 사는 김화성, 나채익, 홍치엽, 이선일 등 4명을 붙잡아 직접 심문하였다. 김화성은 '동학3로'의 한 사람으로서 『동경대전』을 직접 간행하여 배포하고 대장장이를 불러 모아 무기를 제조하고 인근 지역에서 군수물품을 조달해 세성산에 비축한 핵심 지도자였다. 윤영열은 이들 4명을 모두 직접 총살하는 한편, 김나귀, 김순경, 임만진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인계하였다.<sup>59)</sup> 그는 이 공로로 10월 27일 선봉진의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다.<sup>60)</sup>

55)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9월 26일조.

56)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10월 22일조.

57)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10월 24일조.

58)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11월 6일조.

59)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하, 437-439쪽.

60)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10월 27일조.

그밖에 10월 22일 선봉진 별군관 최문환은 세성산전투에서 패한 뒤 돌아온 직산 대접주 李千汝·金春日·金龍喜 등을 체포하였는데, 이천 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총 17자루, 양창 9자루, 창 80자루, 鐵丸 500개, 환도 4자루, 동경대전 판각 2권 등을 몰수하였다. 이들은 모두 효수되었다. 또 목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崔昌奎와 金炳憲도 27일 최문환에 의해 체포되어 선봉진에 인계, 목이 잘리었다.<sup>61)</sup>

그런데 이상과 같은 동학농민군의 희생은 정부쪽 기록에 의한 것이다. 이두황의 보고문에는 세성산전투과정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실상이 누락되어 있다. 증언에 의하면, 전투과정에서 죽은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세성산에 버려졌다고 하며 세성산 북쪽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동학군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또한 동학도들이 많이 사는 마을은 불태워졌는데, 동경대전을 간행한 김은경의 집이 있었던 병천 면실마을을 비롯해 병천 서원말, 북면 도령골마을, 광덕 땃거리마을, 북면 연춘리 역원 등지였다.<sup>62)</sup> 동면 보평에 살던 한유길 접주도 마을에서 죽었다고 한다.<sup>63)</sup>

이와 같이 세성산전투로 동학농민군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다. 세성산 정상에 쌓아 놓은 각종 무기와 군량미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어 갔다. 많게는 전사자가 370명, 중경상자가 770명, 포로가 17명이었다고 한다.<sup>64)</sup>

목천 세성산에 집결해 있는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한 이두황부대는 10월 26일 공주 충청감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 체포한 동학농민군의 목을 잘라 처형하였다. 이때 처형된 동학농민군은 대장 김복용, 중군 김영호, 화포대장 원전옥을 비롯해, 천안군에서 압송한 14명, 소모관 정기봉이 인계한 장돌용과 안천복 등 22명이었다.<sup>65)</sup>

61)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상, 475-476쪽.

62) 이원표·장성균, 앞 책, 124-130쪽.

63) 아우내문화원, 『東天安 文化·地名의 由來와 傳說-』(2005) 참조.

64) 이원표·장성균, 앞 책, 110쪽.

65)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96쪽.

이렇게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지도자급 동학농민군 22명을 처형한 뒤 세성산을 출발하여, 10월 26일 연기 봉암동에서 하룻밤을 잔 뒤 27일 공주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청주 병영이 청주 방어에만 집중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주 병영은 세성산전투가 끝난 10월 24일 이두황에게 감결을 보내, 병사 3백 명을 천안과 목천 사이에 남겨 놓고 청주 병영으로 오라고 하였다.<sup>66)</sup> 이두황이 공주를 향해 출발한 26일에도, 청주 병영은 동학농민군이 청주로 진격할지 모르므로 청주로 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두황은 청주 병영의 뜻을 무시하고 양호순무영과 선봉진 및 충청감영의 지시에 따라, 공주로 가서 충청감사와 일본공사 등을 만나 다음 군사행동을 준비하였다.<sup>67)</sup>

세성산에 흩어진 동학농민군 주력군도 공주 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구는 '목천 동학도의 소굴'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목천과 공주는 전부터 서로 소통이 있었고 세성산전투 이후 상당수의 동학농민군이 유구로 내려가 활동하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군이 유구마을을 통과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봉준과 약속하기를, 그들이 정부군의 후미를 끊고 내려가면서 공격하고 전봉준은 금강을 건너 역공하여 위아래 양쪽에서 협공하기로 하였다.<sup>68)</sup> 이것으로 보아 목천 세성산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공주 유구로 내려가 활동하면서 전봉준과 연합작전을 폈으며, 이들 역시 11월 8일부터 전개된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6)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93쪽.

67)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296-298쪽.

10월 26일 예산 신례원에서 관군이 동학농민군에게 패한 뒤 예산·서산·해미·태안·홍성 등 충남 서해안지역이 동학농민군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자, 수령들로부터 파병 요청이 성화같이 날아왔다. 그리하여 10월 27일 공주 충청감영에 입성한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29일 공주를 출발하여 온양을 거쳐 11월 4일 예산, 11월 7일 해미, 11월 11일 유구, 11월 14일 정산 등지를 행군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최현식, 앞 책, 177-181쪽). 이 때문에 이두황부대는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혹자는 이두황이 위험을 피해 외곽으로만 돈 것으로 혹평하기도 한다.

68)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 상, 311쪽, 11월 11일조.

#### 4.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1894년 10월 21일(양력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개된 목천 세성산전투는 9월 20일 서울서 출병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사에서 공주-청주 이북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였다. 이 전투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군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두황이 이끄는 친군장위영군 1개 중대병력 700여 명이 단독으로 벌인 전투였다.

세성산전투에 투입된 친군장위영군은 좌·중·우 각 4개 소대씩 도합 12개 소대와 포대·곡호대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각 소대는 교장·규칙·십장·병정·화병·후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원은 31~68명이었다.

이에 맞선 동학농민군은 4천 명 규모였으며 대장 김복용, 중군 김영호, 화포대장 원전옥, 좌우도 도금찰 이회인, 1885년 이후 목천지역 동학도를 이끈 '동학3로' 중 한 사람인 김화성 등이 이끌었다. 이들 동학농민군은 1894년 9월 18일 동학교단의 남북접 연합과 대일항전 참여로 발해진 동학도의 기포령에 따라 9월 30일경에 기병하여 목천 세성산을 근거지로 조직을 정비하고 무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김복용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참여한 세력이었다. 또 하나는 1880년대에 들어와 목천지역으로 동학이 전파되면서 세력을 키운 동학 토착세력으로, 이회인·김화성 등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세성산을 장악한 동학농민군은 같은 10 소속인지 알 수 없으나, 목천지역 안팎의 연합군으로 재지 동학세력이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목천지역에 동학이 일찍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목천에는 18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동학이 전파되었는데, 특히 1883년에는 김은경 집에서 『동경대전』 1천여 부를 간행하여 배포하였고, 1885년 이

후에는 세성산전투 때 조직적으로 참여한 김화성을 비롯한 '동학3로'를 중심으로 또다시 『동경대전』 1백 권이 간행되고 동학조직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목천지역 동학도들은 1893년 보은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894년 9월 하순 동학교단을 이끄는 북접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목천 인근의 동학농민군은 세성산을 점거하고 군수품과 군량미를 비축하였다. 이들이 세성산에 진을 친 것은 장차 서울로의 진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컸다. 특히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북상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 소속 동학농민군 역시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동학농민군의 세성산 점거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학농민군 진영의 최북단에 있고 서울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세력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성산 동학농민군은 제일 먼저 정부군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10월 14일 보은 장내리를 초토화한 뒤 위기에 빠진 충청감영을 지원하고자 공주로 갈 계획이었는데, 청주 병영의 지시에 따라 세성산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청주 병영은 청주 방어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력을 공주에 집중시켜 동학농민군을 방어하려는 양호순무영과 충청감영의 전략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황은 청주 병영의 지시만을 따랐다. 그 이유는 목천 동학농민군이 공주와 청주 사이에 집결해 있어 큰 우려가 될 뿐 아니라, 서울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어 선봉진의 앞길에 장애가 되므로, 먼저 서울과 가까운 적을 격파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두황의 판단은 이두황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위험지역을 피해 외곽으로 돈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공주의 배후세력을 차단하고 정부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성산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필요성이 있었다. 목천 세성산전투가 있었던 10월 21일부

터 공주 우금치전투가 전개된 11월 8일까지의 사태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 세성산전투에서의 정부군 승리는 결과적으로 정부군이 공주 이북지역을 장악한 상태에서 우금치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戰局을 만들어 놓아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세성산전투는 화력 등 총체적 전력이 열세인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농민군이 최정예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하였을 때의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세성산 정상에 진을 치고 기음을 토하던 동학농민군은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곧바로 패퇴하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 피해와 아울러 군수품을 잃었다. 더욱이 세성산전투 이후 많은 잔여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그들이 살던 마을이 초토화되기도 하였다.

세성산전투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고, 막대한 양의 무기와 군량을 잃은 것은 총체적으로 동학농민군의 큰 손실이었다. 즉, 세성산의 근거지를 지탱함으로써 정부군과 일본군의 남하를 견제하고 동학농민군의 서울 진격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총체적인 전략 약화를 초래하였다.

세성산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은 곳곳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으나, 모두 패배로 끝났다. 10월 22일 강원도 홍천 서석전투, 10월 23일 전봉준부대의 이인·효포전투, 10월 28일 충남 홍성전투, 10월 29일 충북 증약전투 등에서 동학농민군은 모두 패배하였다. 이들 전투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일본군 사이의 大會戰이었던 공주 우금치전투의 전초전으로, 이들 전투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동학농민군의 총체적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성산전투는 1894년 7, 8월 이후 승승장구하던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꺾이는 첫 전투였다.

지금까지 기존 조사성과와 사료를 토대로 목천 세성산전투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목천지역 최초의 동학 지도자였던 김은경이 살던 집 위치, 김

은경 집에서 간행한 『동경대전』과 ‘동학3로’가 간행한 『동경대전』과의 관계, ‘동학3로’의 존재와 목천지역 동학의 조직화과정, 동학농민군의 세성산 집결 시기와 구성, 세성산전투과정, 세성산전투 이후 동학농민군 탄압과정, 세성산전투 이후 지역사회변동, 다른 지역과의 비교, 정부군의 군사전략과 진압과정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 발굴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문헌 연구 외에 세성산 정밀지표조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동학농민군이나 정부군이 사용하던 무기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구전되어 온 동학농민군의 집단매장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산 속에 시체가 많이 쌓여 있어 세성산을 ‘시성산’(시체가 쌓여 이룬 산이라는 뜻)이라 부르고 있는 지명 유래는 집단매장지(제시당골)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후손 발굴과 증언 채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금까지 고 이원표 선생님의 노력으로 많은 조사자료가 확보되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후손 발굴과 증언 채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상에 접근해야만 한다.

앞으로 세성산전투를 기리는 동학농민전쟁 기념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지역단위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에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세성산전투가 있었던 목천지역도 충분한 역사적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9. 1. 15, 심사수정일 : 2009. 3. 3,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목천, 세성산전투, 김복용, 이희인, 이두황, 정부군, 장위영군,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군, 동학농민전쟁

<ABSTRACT>

###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Mokcheon* Area and the Battle of *Seseong* Mountain

Kim, Yang-sik

*Mokcheon* is an area in *Cheonan* City, in current *Chungnam* Province. *Donghak* had widely spread in this region in 1880. In 1883, *Donghak* scriptures had been published in this region and its total number of believers were increasing day by day. Therefore, the believers of *Donghak* had congregated in the assembly of *Boeun* that was organized in 1893, and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Donghak* Peasant Army in 1893.

The *Seseong* mountain battle was the battle that broke out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Government Forces. The siz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4,000. They were led by *Kim Bogyong* and *Lee Huieun*. They started reinforcing their arms from around September 30, 1894 after they occupied *Seseong* mountain. In order to secure th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 while preparing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o attack Seoul.

Against it, the Government Forces (*Jangwiyeong* Army), led by *Lee Duhwang* departed Seoul on September 18. After passing by *Cheongju* and *Boeun* attacked the *Donghak* Peasant Army in *Seseong* mountain on October 21. The Government Forces surrounded *Seseong* mountain and attacked them. After a whole day of battle,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totally defeated by the Government Forces.

Key Words : Mok-Cheon, The Battle of *Seseong Mountain*, *Kim Bok-yong*,  
*Lee Hui-eun*, *Lee Du-hwang*, Government Forces, *Jangwiyeong*  
Army, The Battle of *Wugumchi*, The *Donghak* Peasant Army,  
*Donghak* Peasant War